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12. 21.(수)
담당 부서	고등교육정책실 대입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혜림 (044-203-6368)
		담당자	사무관 황소정 (044-203-6367)

교육부는 수능 시험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

- 언론사명 : 아이뉴스24 등 / 2022. 12. 20.[화]
- 제목 : “수능 없애겠다” 이주호 장관의 단호한 결심

<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>

-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‘수능을 없애겠다’고 언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 - 이주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 시험을 없애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, 수능에 관한 언급은 교실 현장에서의 수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교실에서의 변화를 대입에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.
-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능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교육부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,
 -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,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의 일관성을 유지할 예정입니다.
- 교육부는 대입정책 사전예고제에 따라 고교, 대학,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2024년 2월전까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·발표할 예정입니다.